

2002년 6월 5일

---

##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 토론회 격려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 드리고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대단히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니까. 모두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명장들입니다. 현장을 누벼야 되는 명장들이, 현장을 버리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아마 정치부패 문제가 대단히 절박한 문제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거 와중이라도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자 그래서 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이 부패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선거의 와중에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정치를 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 동안에 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가장, 지금 기준의 하나, 평가 대상의 하나가 바로 이 부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민주당이 앞으로 부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 어떤 절박한 사정에 의해서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처지에서는 선거라는 것이 좋은 정치인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쓸모 없는 정치 자원들을 쫓아 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주당이 쫓아 내는 쫓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도 이처럼 긴장된 자세로 부패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선 부패문제에 대해서 당장 할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현실 속에서 이미 일어난 부패문제에 관해서 단호하게 수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잘 돼야 하고, 또한 그것이 잘 되면 이후에도 대체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문제에 관해서는 원칙대로 단호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별다른 의문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특수한 상황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또 어떻게 왜곡된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고, 또한 민주당으로서도 예의 주시하고 일이 잘 못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심부름을 가다가 도랑을 만나서 심부름을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했던 말을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단호하고도 올바른 처리,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형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돌이켜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로써 완벽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정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지금의 정치제도, 정치자금의 제도라든지 정치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를 가지고는 아주 효율적인 정치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제도 개혁의 문제라고 한다면 다음의 중요한 문제는 누가, 누가 올바르게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또 개혁된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제도개혁보다는 누가, 누가 깨끗한 정부를 운영해 갈 것인가. 이쪽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있고,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나서서 자기들이 새로운 시대, 제도개혁과 또는 부패청산과 깨끗한 정부를 운영할 적당한 주체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회창 후보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몇 부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엄청난 부패 시대의 주역이었다는 사실도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친인척 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회창 후보는 잘 정비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과거의 부패를 청산한다는 것도, 또 미래의 깨끗한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분노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국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그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보자는 데 불과한 것이지, 결코 우리 한국을, 한국의 정치부패를 근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체로서는 자격이 없다.

한국은 미래가 없는가? 여기에 우리 민주당,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뜻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결코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총재직을 내봐도, 또 당적을 이탈해도,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또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겸허히 사과 드리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바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짐하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가 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세력 중에서, 특히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민주당이 아직도 깨끗한 정치, 또는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서 적당한 자리에 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흠이 있지만, 어떻든 상대적으로 민주당 밖에는 또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정치세력도 정치인도 없다. 그것이 국민들로서는 아쉽고, 유감으로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국민들에게 각오를 밝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고, 간곡히 호소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뜻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걱정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토론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좋은 토론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비장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남의 흠을 잘 드러낸다고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자기의 불편과 자기의 불이익을 이겨낼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동지들끼리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집단 속에 개혁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개혁에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많은 고통을 부담시켜야 하는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일 때, 더욱더 개혁은 어려운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보다 함께 하는 조직과 집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살을 베는 각오로 우리가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에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이러

한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해 낼 때, 또한 국민들로부터 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때,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해야 만이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도 개혁도 기대를 걸 수 있다. 한국의 미래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토론장이 됨과 아울러서 비장한 어떤 결단의 장이 되고, 또 여기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하나의 지점과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내 주신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위원회와 토론회를 잘 준비하고 이끌어 주신 신기남 의원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